	일본 (도쿄) 사무소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해외동향보고서	담당자	성용찬 소장
		일시	2024.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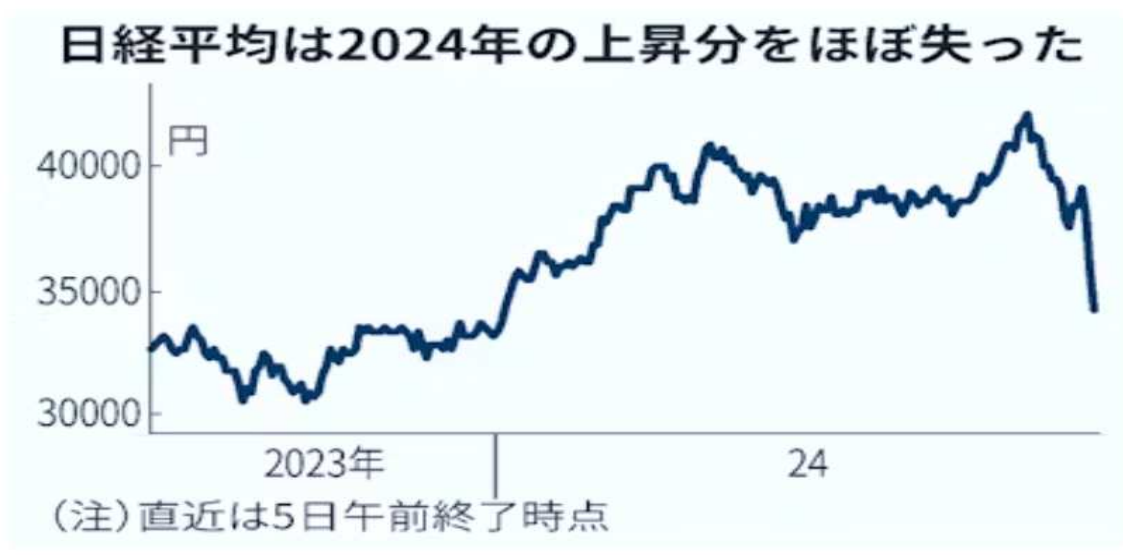
CEPA Insight

- ① 닛케이 주가 평균 4,451엔 하락, 시세 급변동으로 투매 (역대 최대치로 급락)
- ② Amazon, 일본에서 약 인터넷 판매 의료DX 가속화

① 닛케이 주가 평균 4,451엔 하락, 시세 급변동으로 투매(역대 최대치로 급락)

- 5일 도쿄 증시에서 닛케이 평균주가가 며칠 연속 급락
 - 닛케이 평균지수는 전주말보다 4,451엔(12%) 하락한 31,458엔으로 마감. 1987년 10월 엔 20일 블랙 먼데이 다음 날인 1987년 10월 20일 미국 증시가 사상 최대 폭으로 급락한 3,836엔보다 하락폭이 컸음. 해외 기관투자자, 헤지펀드, 개인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전원이 매도에 나섬. 2023년 말 종가(3만3464엔)보다 낮게 2024년 초 이후 상승분 모두 손실됨. 일각에서는 하락 여지가 있고 시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

《 닛케이 평균, 2024 상승분 대부분 손실 》



(주) 최근은 2024년 8월 5일 오전 종료 시점

- 지난 주말 2일 발표된 미국 7월 고용보고서에서 취업자 수 증가율은 시장 예상보다 낮았고, 미국 증시는 경기침체가 급속히 확산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급락한 것으로 보임. 5일 도쿄 시장에서는 미국 달러 대비 엔화가 일시적으로 1달러=142엔 수준까지 상승해, 약 7개월 만에 엔화 절상 기록을 보임.
- 오후에는 닛케이 평균 주가의 선물도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 13시 26분부터 13시 36분까지 약 10분 동안 거래가 중단됨. 2024년 9월물 닛케이 선물은 지난주 정산과 비교해 한때 약 8% 하락. 닛케이 선물이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한 것은 2016년 6월 24일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이후 처음.
- 최근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은행 주가도 이틀 연속 급락함. 미쓰이스미토모 금융그룹은 1,500엔(16%) 하락한 8,162엔을 기록했는데, 이는 한도 범위(정지 저가)의 하한선임.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은 한때 21%,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은 한때 15% 하락함.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장기금리가 급락하면서 채권가격이 급등했고,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금리는 잠시 0.785%로 지난 4월 9일 이래 약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시장에서는 다양한 투자자들이 모두 매도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au Kabucom Securities의 시장 분석가인 Tsutomu Yamada는 "최근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따라잡기(추가 담보 약속 의무)가 발생했으며 개인 투자자가 현금을 위해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 마쓰이증권의 구보타 토모이치로(黒田戸一郎) 선임 시장 애널리스트는 "최근 급락 전에 이미 하락세를 보이던 반도체 관련주가 따라잡고 있는 것 같다"고 밝힘.
- 도쿄증권거래소에 따르면 7월 26일 현재 마진 매입액(도쿄와 나고야의 두 시장의 기관 신용과 일반 신용의 합계)은 4조 9,808억 엔으로 2006년 6월 이후 약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임. 일본 증시가 급락하기 전 높은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에 신용으로 매수하던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보이며, 일본 주식의 주요 매수자인 해외 투자자들도 매도세를 보임.
- 일본 증시는 언제쯤 하락을 멈출 것인가에 대해 닛사이 연구소의 이데 씨는 "밸류에이션(투자 규모) 면에서는 저평가돼 있어 하락세가 멈추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일본 주식만큼 하락하지 않은 미국 주식이 더 약세를 보이면 그에 따라 약해질 위험이 있다"고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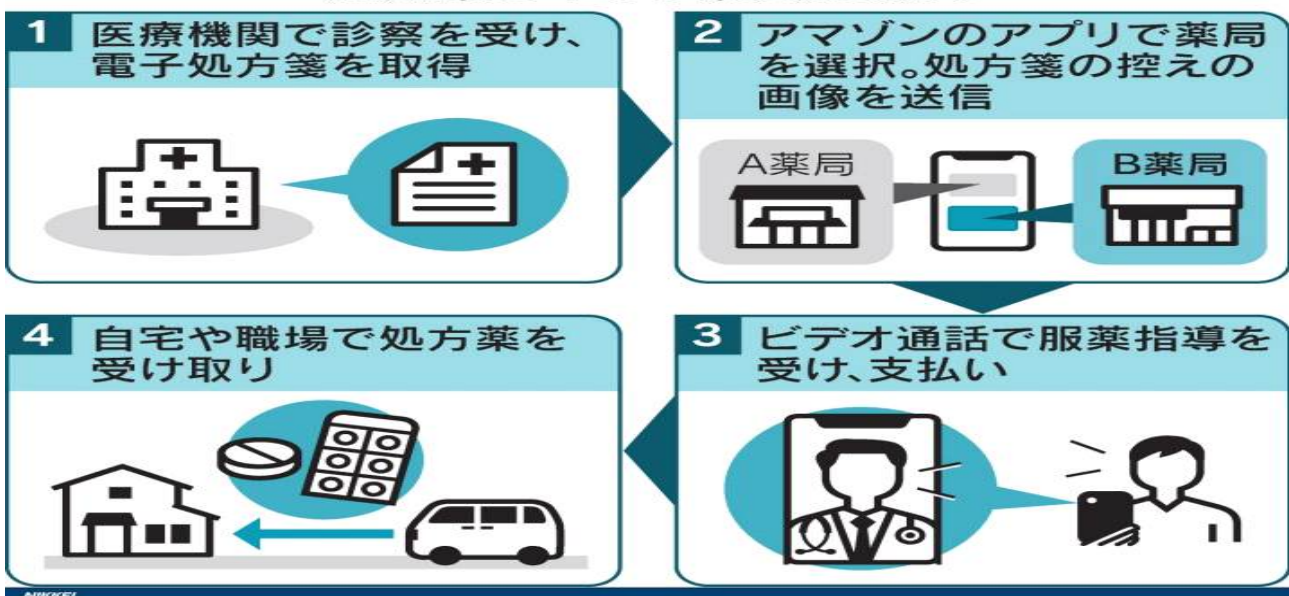
-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 고용 통계 둔화로 인해 미국 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높아졌음. 일각에서는 중앙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급 금리 인하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임. 달러화가 절하되고 엔화가 추가 절상되면 일본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바닥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저점을 잡기 어려움. 따라서, 일본 증시는 계속해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임. (출처 : 니혼게자이신문, 2024. 8. 5.)

② Amazon, 일본에서 의약품 인터넷 판매 의료DX 가속화

- 아마존 재팬(도쿄 메구로)은 23일 자사 앱에서 처방약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힘. 이 회사는 최대 드럭스토어인 웰레시아홀딩스(HD)와 아인HD(Ain HD) 등 약 2500개 점포와 협력할 예정. 전자 상거래 대기업이 의료 분야에 진출함에 따라 일본 의료 시스템의 디지털화는 단번에 진행될 가능성이 만들어짐. Wellesia HD와 Ain HD 외에도 Qol HD, Tomod's(도쿄 분쿄), 신세이도 약국(후쿠오카 시) 등 9개 회사가 협력.
-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취득한 전자 처방전을 앱에 등록하고, 약사로부터 온라인으로 복용 방법 등의 복약 지도를 받고, 약을 배송받음. 온라인 의료 앱 '클리니커스(Clinicus)'를 운영하는 메들리(Medley)와도 협업할 예정임.

《 처방약의 인터넷 구입 흐름 》

処方薬のネット購入の流れ



1.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고 전자처방전 취득	→ 2. 아마존 앱으로 약국 선택 ↓
4. 자택이나 직장에서 처방약 수취	← 3. 영상통화로 복약지도를 받고 요금 지불

- Amazon은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의료 및 헬스케어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한 최초의 기업으로, 2018년 온라인 약국 스타트업 필팩(Pillpack)을 인수하면서 의약품 판매에 본격적으로 진출함. 2020년에 온라인으로 처방약 주문을 받고 배달하는 서비스인 Amazon Pharmacy를 출시하였으며, 의약품 전용 창고를 설치하고 주문 당일에 의약품을 배송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확장.
- 또한, 의료 서비스의 '업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의료 사업에도 주력할 예정. 2023년에는 미국에 본사를 둔 구독 기반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인 One Medical을 39억 달러에 인수함.
- 일본에서는 가정의학과 비슷한 '일차 의료'라는 일반 의료가 있지만, 수입이나 직업에 따라 보험이 다른 등 제도가 복잡하고, 예약이 어려울 수 있어, 아마존은 디지털 기술과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축된 배송망으로 이러한 불편을 해소 가능함.
- 아마존이 이러한 시장 참여로 경쟁도 심화되고 있으며, 의약품을 취급하는 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도 온라인 의료 상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음. 거대 제약회사인 CVS 헬스(CVS Health)와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Walgreens Boots Alliance)도 인수를 통해 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있음.
- 안전한 온라인 약국 연합(Coalition for Safe Online Pharmacies)에 따르면 2023년 미국 성인의 52%가 온라인 약국을 통해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의약품을 구매했으며, 이는 21년 대비 10% 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20년에는 30%대에 머물렀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22년 미국 성인의 약 30%가 지난해 온라인 진단과 같은 원격 의료를 이용.
-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대면 의료가 주를 이루고 있었고, 온라인 의료 상담이나 복약 지도가 보급되지 않았으나, 2018년 의료비 개정으로 온라인 진료에 보험 적용되기 시작함. 아직은, 23년 3월말 기준으로 약 18,000개의 의료기관이 대응하여 대응률은 16%에 불과하고 후생노동성이 의사의 대응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도 장애물임.

- 반면에 환자 측의 잠재적 수요는 높음. 후생노동성이 실시한 22년도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의료 상담을 경험한 사람의 82%가 '대면 진료에 비해 대기 시간이 줄었다'고 응답해 호평을 받았음. 응답자의 21%만이 대면 상담에 비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느꼈다고 응답.
- 아마존의 새로운 국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자 처방전을 받아야 함. 의료 산업의 경영 지원을 담당하는 CB 컨설팅(도쿄 미나토구)의 컨설팅 사업부 총괄 매니저 긴조 카즈키(Kazuki Kinjo)는 "아마존의 시장 진출에 따른 영향은 크고, 환자가 전자 처방전을 요구하면 의료기관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
- 정부는 향후 의료 격차 해소와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해 헬스케어 분야의 DX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사와 약국의 인센티브 부족과 소비자 의식 부족으로 정체되어 있으나 편리성을 강조하는 아마존의 시장 진출은 일본에서 의료의 본격적인 DX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임.

(출처 : 니혼게자이신문, 2024. 7. 23)